
출장결과보고

2024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한-중남미 무역 · 혁신 포럼

2024년 8월

< 출 장 개 요 >

□ 출장 목적

- 글로벌경제 이슈를 비롯한 G20 관련 연구를 위해 2024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에 참석

□ 출장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출장자: 조동철 원장, 나정현 전문위원, 김보전 전문연구원 (총 3명)

□ 출장일정: 2024년 7월 23일(화) ~ 29일(월), 3박 7일

<표 1>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7.23(화)	16:25~ 현지 17:20	[출국] 인천 → 아틀란타 (KE5039)	
	현지 20:00~	[환승] 아틀란타 → 리우데자네이루 (KE7291)	
7.24(수)	현지 06:50	도착 및 호텔 이동	
	12:00~14:00	간담회(1)	
	15:00~17:00	사전 관계자 회의	
	18:00~21:00	간담회(2)	
7.25(목)	09:00~18:00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Day 1)	행사장 1
	09:00~18:00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Day 1)	행사장 2
	09:30~10:3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0:30~11:20	세션 1. 한-중남미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IDB의 역할	
	11:20~11:40	초청발표. 한-IDB 파트너십 방향	
	11:40~12:30	세션 2. 글로벌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응방안	
	12:30~13:20	세션 3. 민관 파트너십: 인프라 관련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 원장 패널 참석	
	15:00~18:00	스타트업 피치데이 / VIP 양자회의	
19:00~21:00	간담회(3)		
7.26(금)	09:00~18:00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Day 2)	행사장 1
	09:30~17:00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Day 2)	행사장 2
	10:15~11:15	세션 4.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공급망 혁신 방안	
	11:15~12:15	세션 5. 블록체인과 디지털경제: 한-중남미 협력	
	14:00~17:00	스타트업 피치데이 / VIP 양자회의	
19:00~21:00	간담회(4)		
7.27(토)	현지 14:25~	[환승] 리우데자네이루 → 로마 (AZ673)	
7.28(일)	현지 06:45	및 레이오버(layover)	
	현지 21:25~		
7.29(월)	15:35	[귀국] 로마 → 인천 (KE932)	

주: (행사장 1) Windsor Barra Hotel / (행사장 2) Hilton Rio de Janeiro Copacabana

< 출 장 결 과 >

1.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

* 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포럼 개요¹

- 일자/장소: 2024년 7월 25일(목)~26일(금)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힐튼 코파카바나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미주개발은행에 대해서는 아래의 참고 참조
- 참석자: 중남미 국가 및 한국 정부대표, 기업인 등 (약 300여 명)
- 주 제: 글로벌 식량안보, 민관협력을 통한 인프라 투자, 공급망 혁신,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방안*
*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주축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한국 기업의 중남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

□ (참고)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개요

- 설립 연도 및 목적
 - 연도: 1959년(본부: 미국 워싱턴D.C.)
 - 목적: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 회원국: 48개국(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 역내국(84%):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역외국(16%):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중국 등
- 조직: 총회 및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 이사회: 총 14명의 이사
 - 총 재: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前브라질중앙은행총재로 2022년 12월 취임
- 주요 업무
 -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증
 -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조
 - 개발계획 준비, 재원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기술원조 제공
- 한국과의 관계
 - 가입 시기: 2005년 3월(IDB 조달참여권 획득, 내년 2025년은 가입 20주년)
 - 2015년 IDB 총회 개최: 3월 26일~29일 / 부산 벅스코

1 해당 포럼의 공식사이트(<https://korea-lac.com/>) 참조

가. 브라질 부통령 및 한국 고위급 대표단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 시: 7월 25일(목) 10:30 ~ 11:30
- 참석자: 제라우두 아우키민(Geraldo Alckmin) 부통령 겸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정외영 KOTRA 혁신성장본부장, 양재은 현대자동차 브라질 부사장, 김호균 삼성전자 라틴아메리카 부사장, 최해룡 CJ제일제당 미주지역 바이오 사업 부문 CEO, 상재문 LS엠트론 브라질 CFO, 김종갑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GDIN) CEO 外
- 주 제: 한국-브라질 경제유대관계 강화 및 투자촉진

□ 주요 내용

- 본 회의는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의 일환으로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
-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들과 브라질 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논의
 -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불법 수입, 세제, 관세 등 현지 사업 수행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브라질 부통령은 담당 기관과의 협의를 약속
- 조동철 원장은 공공부문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인프라 발전 과정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지식공유 측면에서 한국과 브라질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나. 포럼 세션 3 토론

□ 세션 3 개요

- 일 시: 7월 25일(목) 12:30 ~ 13:20
- 참석자: 조동철 KDI 원장, Marcos Siqueira Moraes(IDB PPP 부서, 수석전문가), Lady Katherin Sandoval Chacon(콜롬비아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프로젝트 매니저), Cleyton Miranda Barros(브라질 Investment Partnership Program, Head of Special Advisory Services), 이승환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지원공사(KIND) 인프라 개발실장
- 주 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기회 확대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caling up the Opportunities for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nd LAC Infrastructure)

□ 주요 내용

- 본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투자자들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한 시장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 조동철 원장은 본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민간투자 현황, 민자유치의 성공요인과 민간투자에 있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
 - 특히,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30주년을 기념하여 KDI-기재부 공동으로 11월 서울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
- 또한, 중남미 연사들은 한국의 PPP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KDI가 중남미 지역으로도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해주길 희망한다고 국제협력을 제안
- 이에 대해 조 원장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WB 및 ADB와 협력하여 기재부와 공동주최하고 있는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를 국제협력 사례로 언급
 - * Asi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actitioner's Network: 한국이 주축이 되어 2008년 구축한 아시아 역내 민간투자 포럼으로 2010년 이후 아태지역 PPP 발전을 위한 정책공유 세미나를 개최, 올해 제11회 APN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10월, 서울)
- APN과 같이 KDI-IDB 상호협조가 있다면 향후 중남미와도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해당 포럼의 동영상(<https://www.youtube.com/live/v9xqqLfFOqI>) 참조

2. 2024년 브라질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 회의 개요³

- 일자/장소: 2024년 7월 25일(목)~26일(금)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윈저 바라 호텔
- 참석자: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국제기구 대표
 - G20: 대한민국, 브라질(의장), 아프리카연합(AU),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전년도 의장),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내년도 의장), 튀르키예, 영국, 미국
 - 초청국: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 대한민국과 의장국인 브라질 외는 국가명 알파벳 순
 - 국제기구: IMF, UN, WB, WTO 등
- 구 성: ①세계경제 전망·평가, ②금융이슈, ③국제조세 협력, ④지속가능금융, ⑤국제금융체제 등 주요 의제별(표 2 참조)로 총 5개 세션
- 결과물: 공동합의문(Communiqué), Chair's Statement 등(별첨 2-1, 2-2, 2-3 참조)

□ (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물가와 금융 안정성 유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원, 글로벌 성장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

- 우선, 장기 금리 상승과 과도한 공공부채로 일부 국가의 재정 여력이 제약된 상황임을 경계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성장 친화적이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함.
- 또한, 국가별로 불균등한 경기 회복세와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는 글로벌 중장기 성장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각 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 동력을 회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
- 회원국들은 그 밖에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분절화, 기상 이변과 AI 등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며, 특히, 경제 분절화에 맞서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하고,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

<표 2> 2024 G20 브라질 재무트랙 의제/분야

실무그룹(WG) 및 태스크포스(TF) 명칭	
1	거시정책공조(Framework Working Group: FWG)
2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IFA)
3	인프라(Infrastructure Working Group: IWG)
4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SFWG)
5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
6	금융포용 및 금융섹터이슈(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7	재무·보건(Joint Finance and Health Task Force: JFHTF)
8	Task Force for a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9	Task Force for the Global Mobilization Against Climate Change

자료: G20 Brazil 2024, Finance Track (www.g20.org/en/tracks/finance-track, 접속일: 2024. 7. 1).

3 2024 G20 브라질 공식사이트(www.g20.org/en) 참조

- **(세션3. 국제조세 협력)** 회원국들은 금번 발표된 국제조세 협력 선언문*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필라1의 조속한 논의 마무리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의 포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국제 협력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

* The Rio de Janeiro G20 Ministerial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별첨 2-4 참조)

- 먼저, 회원국들은 빠른 시일 내 필라1의 합의가 마무리 되어 회원국들이 서명할 수 있는 다자조약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
- UN에서 논의되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회원국의 합의(consensus)를 추구하고 기존 국제기준과 불필요한 중복이나 상충을 피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UN 국제조세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국들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의 국제대응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초부유층 과세와 관련하여 논의

- **(세션4. 지속가능금융)** 회원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자원 동원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회원국들은 현재 작성 중인 『2024 G20 지속가능금융보고서』와 함께 다자 기후·환경 기금 운영 최적화를 위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표명
 - G20에서 논의 중인 「공정한 전환계획 추진」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전환계획의 상위원칙 개발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
- 한편, 회원국들은 ISSB 등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과제를 인식하고,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가별 유연성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
 - 자연기반해법(NbS)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금번 G20에서 마련 중인 권장 사항과 함께 NbS 사례 공유에 집중

- **(세션5.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의 강화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 촉진을 위한 방안 등 논의

- 회원국들은 「Bigger, Better, and More effective MDBs」 달성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 요인에 대처하고, 개도국의 개발수요 대응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수렴
 - 이를 위해 MDB는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제4차 재무 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 예정인 『G20 MDB 개혁 로드맵』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또한 회원국들은 추가 대출여력을 창출하는 CAF* 권고안의 이행을 점검한 『G20 Progress Report』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신용평가기관(CRA)과의 대화 강화 등 통해 이행을 지속할 것을 촉구

* 자본 적정성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증자없이 MDB 대출여력 확대 위해 기존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22년 7월 권고안 발표, '23년 7월 CAF 이행 로드맵 채택

- 다음으로 회원국들은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성장, 재정지속가능성, 국내자원동원 등 정책수단의 결합과 함께 부채 상환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조달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지원 등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동의
 -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Common Framework」*의 이행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한 『G20 CF Note』** 합의에 기대

*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 ('20년 11월~): 저소득국 채무구제를 위해 G20내 파리클럽국과 중국 등 非파리클럽국이 모두 참여하는 채무재조정 플랫폼 마련

** G20 Note - Common Framework : Lessons learned and ways forward

- 한편, 회원국들은 신흥국으로의 지속가능한 자본흐름을 촉진하고 필요시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 해결을 통해 국제금융구조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며 신흥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투자장벽을 해결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